

◆ 特 輯 ◆

## 通商産業部 次官 초청 간담회

—업계 현안 애로사항 대정부 건의—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지난 2月 27日 팔레스 호텔에서 정부 관계관과 重電機器, 가전기기, 계측기기, 의료기기, 조명기기등의 업계 및 단체 대표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산업부 朴雲緒 차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업종별 현황 설명과 업계의 애로 및 건의 전달, 朴 차관의 답변으로 진행되었는데 업계의 참고를 위하여 그 주요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 1. 업종별 현황

#### 가. 중전기(임인주 /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상근부회장)

○ 우리나라 중전기 산업은 내수와 관납위주로 성장해온 관계로 국제시장에서 경쟁에 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시장 및 기술정보에 어둡고, 기술자립이 아직 미흡하며, 한편으로는 제품의 내구성, 성능보장, 안전성이 크게 요구되는 산업으로써 제품의 종류와 규격이 다양하여 표준화와 규격화가 어렵고 제품의 LIFE CYCLE이 3~4년으로 기술개발 속도가 완만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지난해 우리나라 중전기의 생산규모는 전 제조업의 약 2% 수준인 4조 2천억원 규모이며 국내시장 규모는 약 6조원으로 이중 30% 정도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수출은 11억불, 수입 21억불로 10억불 정도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임.

○ 금년 중전기 산업의 경기는 세계 경기의 회복, 엔고의 지속등 대외환경 호전과 설비투자 확대,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고급화 등에 힘입어 전년도에 이어 활황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중전기 산업은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설비의 확충과 765KV로의 승압, 고속전철과 신공항건설, 자동화산업의 확대, 공해설비의 개체 등 대형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어서 오는 2001년 국내시장 규모는 현재의 4배 수준인 약 240억\$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전기 산업은 지난해 무역적자가 약 10억\$로서 우리나라 전체무역적자의 약 17%를 차지하는 등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에따른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기술수준을 조기에 선진화해야 하는 과제도 안도 있음. 특히 '93년 12월 UR협상시 타결된 정부조달협정이 '97년 발효될 예정이어서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업계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진흥회에서는 그동안 업무의 최우선을 우리 업계의 “기술개발 촉진과 수출산업화에 두고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중전기 산업의 기술자립과 수출촉진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전 조사 활동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고, 업계에 해외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수집·전파하기 위한 정보채널 구축을 통해서 업계의 눈을 세계로 돌리는데에도 주력할 생각임.

○우리나라 중전기 산업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약 60%수준이며 타산업 분야 보다도 약 10년 정도 낙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무엇보다도 업계의 부단한 기술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낙후된 중전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망됨.

#### 나. 가전기기(박재린/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이사)

○가전기기는 선진국의 보급 포화상태로 연간 2~3%의 성장에 그치고 있으며 국내 보급율도 증가하지 않는 추세임. 지난해 가전기기의 생산은 40억\$로 이중 17억\$를 수출했고 26억\$은 내수시장에 공급했으며 금년에는 원자재 인상 등에 따른 경쟁력 감소로 생산은 44억\$로 전망되며 수출도 약 8.8%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전자의료기기는 의학, 공학, 전자가 접목된 첨단기기로써 세계 시장 규모가 300억 \$에 달하나 국내시장은 1억 \$로 아주 미미한 수준임.

전자의료기기는 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다품종 소량산업으로 전략적 제품은 수출이 가능하고 기타 제품은 수입에 의존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 지난해 수출이 1억 \$, 수입은 6억7천5백만 \$로서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요구되므로 독일 메카쇼 등에 공동 출품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홍보물을 공동제작하는 등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EDCF자금을 활용, 획기적 수출책으로 약 25%정도의 수출증가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음

#### 다. 계측기기(손정수/ 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 이사장)

○계측기기 산업은 다품종 소량산업으로 연구조합내 60개의 회원사가 있으나 영세하고 수입 의존율이 높음. 부품수가 많고 고도기술을 요하는 대신 매출이 적기 때문에 대기업 참여가 적고 영세업체는 자금, 기술력 부족으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주로 중급제품은 일본이, 고급제품은 독일, 미국, 영국 등이 보급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은 약 500~1천억 \$로 우리나라는 수출 3억 \$내외, 수입 20~25억 \$ 수준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의욕이 필요하겠지만 정부차원에서 산업인력 수급과 자금지원 등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함.

#### 라. 전 선(이형종/ 한국전선공업협종조합 이사장)

○전선의 전체 수요는 1조원, 이중 수출 4~5억 \$, 시장규모 1조5~6천억원으로 최근 신장율이 저하되고 있으며 2~3년전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의 수출이 활발했으나 최근 경쟁력 약화로 수출도 둔화되고 있는 추세임.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 대기업의 전선업계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중소기업들은 매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가 대기업 진출을 자제하도록 관여해 줄 것을 건의함.

### 마. 조명기기(강영식/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조명기기도 몇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매우 영세한 실정임. 세계적으로는 필립스, 오스람이 시장을 좌우하며 우리나라에도 진출하고 있음.

○ 최근에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인 일본제품이 범람하여 이에 대처키 위해서는 자체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R&D자금을 대폭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함.

### 바. 자판기(박재권/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전무)

○ 자판기의 시장규모는 2천억원 규모로 세계 6위권이며 근래 15%정도 성장하고 있음.

○ 자판기협회가 회원 15개사를 중심으로 설립되면서 경기동향, 통계/제도개선·유통구조 개선/위생관리 방안 강구/부품표준화/수출산업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 2. 건의 및 답변 내용

### ■ 건의1. 김신탁/ 일진전기공업(주) 대표이사

○ 정부에서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91년부터 '95년 초까지 5년에 걸쳐 한전기술 개발자금 약 1000억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중전 산업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해 주고, 특히 한전 지원 자금을 기술개발 완료 후 기술료로 한전에 상환토록 되어 있는 50~60% 상당 금액인 약 500억원 규모를 민간기금 형태로 기금화 하여 취약한 중전산업 발전 기금으로 조성토록 배려해 준것은 획기적인 조치로서 통상산업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림.

○ 앞으로도 기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중전업계 발전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업계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각별한 관심을 갖고 더욱 많은 지원올해 줄 것을 요망함.

○ 전기기기 부품은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입품은 수입면장이나 자국의 자체 시험 성적서만으로 면제를 받는 반면 국내 생산품은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의 별도 시험을 받아야 하는 모순이 있음. 따라서, 수입품에 대한 공인시험 적용이나 국내제품의 시험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함.

■ 답변 (차관)

○ 중전기 산업은 성능, 품질보장이 요구되는 산업이나 타산업보다 낙후되어 있어 기술개발 보완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임.

○ 시험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업계 스스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부에서는 앞으로 ISO 9000 인증 획득 제품등 우수 제품에 대해서는 면제 하는 방향으로 공업진흥청과 협의, 추진해 나갈 예정임.

■ 건의 2. 한두석/ 동미전기공업(주) 대표이사

○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중전기 제품의 개발 시험을 받으려면 창원에 있는 전기 연구소가 지 가야하고, 더우기 과적 차량 문제와 시험물량 과다로 1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아 경인지역에 있는 업체는 어려움이 많음.

○ 업체의 70~80% 정도가 밀집되어 있는 경인지역에 단락 시험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창원에서 개발시험을 받음에 따른 운반, 인력낭비등 업계의 부담을 해소토록하여 업계가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인 지역에 개발시험 설비를 조기에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함.

■ 답변(차관)

○ 정부에서는 수도권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공장이나 건물 등의 건설을 억제하고 있음. 그러나, 22.9KV시험장은 전북 고창에 설치하고 500MVA급 단락 시험설비는 경기 의왕시에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 조만간 방침을 확정할 것임. 특히, 전기연구소와 한전연구원을 통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어 이것이 실현 되면 대덕에서 시험이 가능할 것임.

○ 또한, 과적차량 문제는 내무부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중임.

■ 건의 3. 유영철/ 현대중공업(주) 중전기사업부 전무

○ 중전기 제품, 특히 변압기에 많이 소요되는 전기강판의 국내 연간 소요량은 273,000톤으로 이중 포철에서 국내 소요량의 약 70%인 191,000톤을 공급하고, 나머지 부족분 82,000톤은 주로 일본에서 수입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난 1월 발생한 일본 고베지역의 지진피해로 국내 전기 강판의 수급불균형이 예상되어 국내 가격과 수입가가 26% 이상 차이가 나며 앞으로 40% 이상 가격차가 날 가능성도 있음.

○포철에서는 현재 방향성 규소강판의 경우 채산성이 없어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며, 무방향성 규소강판은 생산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포철이 국내 소요량을 정확히 판단하여 생산량을 증가하고 가격도 경쟁력을 갖도록 조정해 주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줄 것을 요망함.

#### ■ 답변(차관)

○현재 포철에서는 수출가 450억\$, 국내 350억\$이라는 가격 이중성 문제가 있는 바, 국내 수요 투자를 위해서는 가격 현실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규소강판 수급추이를 면밀히 검토, 포철과의 협의를 통해 생산량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음.

#### ■ 건의4. 장세창/ 이천전기공업(주) 회장

○과거에는 한전과 업계가 일방적 바이어 관계였으나 진흥회가 설립되면서 이제는 대등, 발전적 관계로 개선됨, 특히, 시험제도개선, 공동연구개발, 기금조성, 제도 국제화추진, 구매제도 개선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음.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한전이 기자재 구매시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능보장 유보금조('94년말 현재 유보금: 약 682억원)로 현금으로 지급을 유보하고 있음. 다른 관공서는 이행증서로 대신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한전에서도 『성능보장 유보금』제도를 폐지하든지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체해 줄 것을 건의함.

○또한 '93. 5 한전구매제도 개선시 물품구입대금을 개선하면서 기성금 지급 대상을 보완·시행키로 했으나 아직 시행 되고 있지 않아 이점도 조속히 해결 해 줄 것을 요망함.

#### ■ 답변(차관)

○전기제품은 성능, 안전이 중요하므로 어떤 부분에서는 규제 강화가 오히려 강조되어야 하는 산업으로 한전도 나름대로 고충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암.

○그러나 얼마전 진흥회, 업계, 한전등 관계기관간에 개선방안을 협의, 제조업체의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능보장 유보금을 폐지 또는 에산회계법 시행령 119조에서 정하는 보증증권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전에 제도 개선을 통보, 조만간 「유보금을 면제 또는 유보금 상당액의 보증증권으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임.

■ 건의 5. 배철수/ 제일조명공업(주) 대표이사

○KS, 형식승인, 에너지 효율등급 등 정부의 규격제도가 너무 많음. 동일 제품에 대한 다양한 품질 승인기준과 취급기관 상이로 통일성이 결여돼 업계가 불편한 것이 사실이며 이로인해 영세한 업체들은 기간·비용등의 부담이 큼. 따라서 규격 및 허가제도를 일원화 해 줄 것을 건의함.

○또한, 전자식 용품에 국한되어 있는 리베이트제도를 다른 제품에 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망함.

■ 답변(차관)

○KS, 형식승인, 각종 마크제 등의 규격과 시험에 관련된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검토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이외에도 전기기기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임. 특히, 품목별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21세기를 대비하는 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임.

■ 건의 6. 유채준/ 대한전선(주) 대표이사

○장치산업인 고압전선의 경우 생산직 종업원의 부족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대기업에도 외국인 고용인력 채용등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전기동 값이 작년 60%이상 인상되어 전선가격도 33%이상 상승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선류값의 안정을 위해 동광석, 조동(粗銅)등의 원료와 전선제품의 수입관세율(현재 50%)을 무세화해 줄 것을 건의함.(대만은 무세, 미국 0.24%, EC 무세)

○전선업계 과당 경쟁 참여와 하도급 건설업체의 덤핑 문제등 유통구조와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들도 개선이 되도록 정책에 반영해 주기 바람.

#### ■ 답변(차관)

○정부에서는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공고생 확대, 산업기술대 설립, 사내기술대생의 편입 보장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 기술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음.

○외국 기능공은 현재 2만명(불법 취업포함 8만명선)이나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앞으로 3만명선을 유지할 계획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고부가가치, 자동화등을 통해 고임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정부조달 시장개방에 대비,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고부가가치를 통해 최저 낙찰가는 개선되도록 예산회계법을 개정해 나갈 계획임.

#### ■ 건의 7. 성덕수/ 신광기업(주) 대표이사

○전구식 형광등은 세계화 추세로 기존 백열등 보다 70~80% 전력소비가 절약되는 제품임. 그러나, 최근 중국등에서 저급제품의 수입이 과다한데, 이것은 전구식 형광등이 광응용기계기구로 분류되어 검사없이 신청만으로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KS, 전자 마크를 받아야 하는 국내 제품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음.

○따라서, 수입품 규제를 위해 전구식 형광등을 대한전기안전관리법상 전구로 분류하여 소정의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함.

#### ■ 답변(차관)

○정부의 규격, 허가제도 검토와 연계하여 재검토 해 나가겠음.

#### ◆ 기타 당부사항(차관)

○수입선 다변화제도는 WTO 체제하에서는 없어야 하나 일종의 회색지대로 UR이 보장해 주어 4년 정도는 비관세 장벽이 가능한 것으로 협정 발효시 180일 이내에는 철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제도가 바로 없어 진다는 생각으로 사전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임.

○또한 단체수계약, 고유업종제도도 그동안 업계에 부정적인 요인이 컸던 만큼 예시제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제할 방침임.

○2천년은 경제 전면전쟁 시대라는 각오로 업계가 우선적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줘 세계시장 개방에 공동 대응토록 노력해 주기 바람.